

신년 하례후 경남 합천 해인사서 성철 스님(왼쪽서 세 번째)과의 기념촬영 모습. 성철 스님 오른쪽으로 박완일 회장, 엄상호 이사장이 서 있다.

“성철 큰스님을 모신 것은 운명 그 자체였다”



성철 큰스님을 그리다

유철주 지음/장경각 펴냄/비매품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제자들에게 혹독한 일과를 내리시고 항상 앞장서 실천하는 모습을 펼쳐 보이신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善知識) 성철 큰스님. 스님은 불자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생전 성철 큰스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제자들의 추모 인터뷰집이 출간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직계 상좌 16명과 재가 제자 20명의 추모 인터뷰를 모은 〈성철 큰스님을 그리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책은 지근거리서 성철 스님을 모신 출재가 제자들의 ‘증언’이 생생히 담겨 있어 우리 시대의 부처님 성철 스님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살얼음 걷듯 엄격해 살벌하기까지 한 백련암 시절을 그리워 하는 제자들이 큰스님 가르침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 책은 선(禪) 전문잡지 〈고경〉 2013년 5월호부터 2015년 12월호까지에 실린 스님과 불자들 인터뷰를 수정 보완하고, 여러 사정으로 당시 진행하지 못한 성철 스님 제자들의 회고를 최근에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책 발간을 진행한 원택 스님은 “이 책은 이런저런 아쉬움을 달래고, ‘후학과 후배들이 선지식을 보고도 만나지 못하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주고자 펴내게 됐다. 책에 실린 내용들은 큰스님을 모신 상좌 스님들의 기억에서 찾아낸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신도님들 인터뷰는 ‘오랜 세월동안 익어진 신심들’이 배어 있는 말씀들이라 읽는 맛과 여운(餘韻)이 남다를 것”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택 스님은 “짧은 만남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승이 주는 간단한 말씀이나 한 올의 가르침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많은 수행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큰스님 열반 25주년’을 기념해 〈성철 큰스님을 그리다〉를 출간했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전, 성철, 혜암, 일타 스님 순. 사진 뒤쪽은 해인총림 수좌 원융 스님.

직계 상좌 16명 · 재가 제자 20명 추모 인터뷰

10월 24~28일 해인사 백련암서 25주기 추모제

대중들에게 전 권 무료 법보시로 가르침 선양

또한 비매품으로 발간한 이번 책의 배포와 관련해 원택 스님은 “10월 24일부터 백련암서 진행되는 4일4야 추모 참회 법회와 10월 27일 성철 큰스님 사리탑서 계속되는 추모 3천배 정진, 10월 28일 해인사 대적광전서 봉행되는 25주기 추모재 때 대중들에게 이번 책 4천 5백부를 무료 법보시할 계획이다. 많은 불자님들과 시민들께서 한국불교의 성지 해인사서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인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책에서는 그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던 성철 스님의 맏상좌 천제 스님과 둘째 상좌 만수 스님이 통영 천제굴과 팔공산 성전암서 성철 스님을 모신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성철 큰스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수행과 포교에 진력중인 제자들의 활약상과 근황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해인총림 수좌와 해인총림 유나인 원융 스님과 원타 스님은 성철 스님의 수행전통을 잇기 위해 정진중이며, 원택 스님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성철 스님 선양 사업에 진력하고 있다. 원영 스님과 원행 스님 등은 하남 정심사와 창원 정인사 등서 도심포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스님들은 제방에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경우, 성철 스님과의 인연은 물론 각자의 일과(日課)에 따라 수행정진하는 이야기도 책을 통해 생생히 전해진다. 또한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철 스님의 법어를 접하고 수행하는 불자들의 이야기도 책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재가불자 중에는 특히 부부 2쌍과 남매가 함께 인터뷰에 응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증언하기도 해서 눈길을 끈다.

출재가자 제자들이 본 ‘성철 큰스님’

▲**천제 스님**(성철 스님 문도회장)=“사람들이 물어요. 큰스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냐고요. 저는 말합니다. 큰스님을 모신 것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닌 그냥 저의 인생이었다고 말입니다. 감히 어떤 점이 좋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호불호를 따졌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 없습니다.”

▲**원융 스님**(해인총림 수좌)=“일반적으로 큰스님들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가운데 대선사(大禪師)라는 칭호는 선원서 평생 동안 선수행을 하여 본분사(本分事)를 체달한 선지식 스님을 두고 일컫는 이름이고, 종단의 법계(法階)로서는 대종사(大宗師)로 부르기도 합니다. 산중 총림에서는 방장, 종단에서는 종정으로서 대중의 지도자 위치에 계셨지만, 큰스님의 평생 모습을 본다면 역시 ‘본분종사(本分宗師)’라는 칭호가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타 스님**(해인총림 유나)=“큰스님께서는 모든 대중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 왔지만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삼천배를 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똑같이 만나 제접하셨습니다. 특정인에게 특권을 허용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니 불교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요즘처럼 정부 기관에는 잘 보이려 애 쓰면서도 국민들 아픔을 보듬지 못한다면 한국불교의 위상 추락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선근** 동국대 인철과 명예교수=“큰스님의 정신은 출가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다짐이 묻어나잖아요. 큰스님께서는 부처님 진리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승복을 벗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실정도로 진리 추구를 강조셨습니다. 이러한 큰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큰스님처럼 중도를 잘 설명하고 또 강조한 분이 안계시잖아요. 중도를 조금만 이해하면 정말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자기를 바로보라’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착한가격 높은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카렌다 DONGJIN SAMBO BUDDHISM CALENDAR 삼보불교 불교카렌다 불교한수막 불교인쇄물 기타불교용품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